

# 진도군, 찾아가는 주민자치 아카데미

### 7개 읍·면 주민자치회·업무담당 공무원 150여명 주민 스스로 과제 발굴·해결하고 갈등 완화 실현

진도군은 최근 7개 읍·면 주민자치회와 주민자치 업무담당 공무원 150여명을 대상으로 2020년 찾아가는 주민자치 아카데미를 개최했다.

11일 진도군에 따르면 찾아가는 주민자치 아카데미는 주민자치의 올바른 방향과 역할에 대한 이해와 다양한 사례 공유로 주민 스스로 지역과제를 발굴·해결하고 지역갈등을 완화하는 실질적 주민자치 실현을 위한 역량강화를 위해 추진됐다.

이날 한국자치학회 이철성 강사를 초빙, 코로나19 상황에 맞춰 3개 권역으로 나누어 소규모로 아카데미를 진행하고

발열체크와 손소독, 마스크 필수 착용 등 예방수칙을 준수하면서 진행했다.

이철성 강사는 “인구 감소 해결은 지역주민과 공무원이 함께 힘을 모아야 한다”며 “진도군 주민자치회가 귀농·귀촌인, 다문화가정 등이 잘 정착할 수 있는 분위기를 형성, 인구유출은 줄이고 살기 좋은 진도를 만드는 데 중추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힘쓰자”고 강조했다.

이번 교육을 통해 읍·면 주민자치회는 ‘주민이 주인이 되는 자치실현, 우리가 만들어 갑시다’라는 슬로건으로 주민들의 다양한 생각과 요구를 합



께 논의하고 결정해 주민이 체감하는 마을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실천 의지를 다졌다.

한편 진도군은 자치분권의 토대인 주민자치회의 자치역량이 한층 더 강

화되어 풀뿌리 민주주의가 실현될 수 있도록 주민자치회 사무실 확보와 함께 다양한 맞춤형 교육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진도=조상용기자

## 해남군, 스포츠 재개로 지역상권 '활기'

### 전국단위 체육대회 연이어

스포츠 명품고장 땅끝 해남에서 전국단위 체육대회가 연이어 개최되면서 코로나19의 장기화로 위축되었던 지역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고 있다.

사회적 거리두기가 완화되면서 해남군에서는 지난 10월 제49회 회장배 전국남녀종별펜싱선수권대회를 시작으로 제22회 한국학생 근대5종연맹회장배·제7회 한국실업근대5종연맹회장배 전국근대5종경기대회, 제63회 전국여름철종별배드민턴선수권대회가 성공리에 치러졌다.

이번달 들어서는 2020년 봉림기 전국실업검도대회, 한국중등축구 연맹회장배 축구대회가 연달아 열려 숙박업소, 식당 등에 발길이 이어지면서 코로나 발생 이후 모처럼 활기를 띠고 있다.

방역지침을 준수한 가운데 열린

무관중 또는 제한관중 경기의 어려움 속에서도 대회참가를 위해 해남을 찾은 선수들은 “코로나19 청정지역에서 열린 대회에 참가할 수 있어서 승패를 떠나 큰 보람과 기쁨이었고 방역관리체계 등도 타 지자체의 성공적인 모범사례가 되었다”고 입을 모았다.

군은 올 연말까지 2020년 전국 중등학교 스포츠테니스대회, 제53회 추계배 전국초등학교 배구대회를 비롯해 펜싱, 근대5종경기대회 등 급격한 전국대회를 추가 개최해 지역경제 활성화에 힘을 보탬 예정이다.

또한 12월부터는 펜싱 청소년대표팀, 근대5종 청소년대표팀을 비롯한 축구, 골프, 육상, 펜싱, 근대5종, 배구 등 다수의 팀들이 동계전지훈련에 돌입할 예정으로 지역경제에 부는 훈풍이 이어질 전망이다.

기동취재본부

## 장흥군, 탐진강 등장한 고래 벽화 '눈길'

### 공공미술 프로젝트 '예양강을 품다' 사업 1차 완성



장흥군 탐진강변에 고래를 포함한 바다 속 풍경이 그려져 눈길을 끌고 있다.

이번 벽화는 장흥군이 문화와 예술이 공존하는 문림의향 장흥의 이미지를 형상화하는 공공미술 프로젝트 '예양강을 품다' 사업을 탐진강변 일원에 추진하면서 1차로 완성된 결과물이다.

예술분야 일자리 창출과 군민들의 문화향유 공간 조성을 목적으로 추진중인 이번 사업은 탐진강변 물놀이장과 유휴공간을 활용하여 벽화를 조성하는 사업이다.

1차로 물놀이장 나무 데크를 활용한 벽화 작품이 완성됐다.

작품에 참여한 작가는 “물놀이장을 찾는 아이들이 보고 즐길 수 있

도록 고래를 그리게 되었다. 고래는 아이들의 꿈을 상징한다”고 말했다.

이번 공공미술 프로젝트에는 장흥군에서 활동하고 있는 37명의 작가가 참여하고 있다.

장흥군은 앞으로도 연말까지 탐진강변 벽면과 교각등 유휴공간을 활용하여 나비날다(I, II) 포토존, 장흥의 4계절과 9경의 모습을 벽화로 조성할 계획이다.

정종순 장흥군수는 “지역 예술인과 주민들이 함께 힘을 모아 장흥군의 보물인 탐진강변에 장흥의 이야기를 담은 작품을 그리고 있다. 이를 통해 주민들과 관광객에게 볼거리를 제공하고, 탐진강을 장흥의 예술이 함께하는 휴식공간으로 만들어 가겠다”고 말했다.

기동취재본부



## 완도군-완도전북(주), ASC 인증 활성화 협약

### 전북 상품화·안정적 공급망 구축

완도군은 10일 완도전북주식회사와 친환경 수산물 국제인증인 ASC 활성화를 위해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지난 2009년 설립된 완도전북(주)는 수산물 도매업체로, 지난 6월 전북에 대한 친환경 수산물 가공유통 국제인증인 ASC-CoC를 획득했다.

이번 업무협약에 따라 완도전북(주)는 ASC 인증을 받은 전복을 수매하는 데 적극 나서기로 했으며 완도군은 ASC 인증 상품화를 위한 전복 물량 확보와 홍보 등에 협력하기로 했다.

완도군은 ASC 인증을 받은 전복의

안정적인 공급처를 확보해 코로나19로 위기를 맞은 수산업계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신우철 완도군수는 “먹거리에 대한 안전성이 중요시되고 있는 만큼 ASC는 수산물 안전성 확보와 지속가능한 수산업을 위해 필요한 인증이다”며 “양 기관이 협력해 친환경 수산물 국제인증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완도군은 현재까지 26개 전복 양식 어가에서 ASC 인증을 획득했으며 세계 최초로 톳과 다시마 등을 생산하는 11개 어가에서 ASC-MSC 인증을 획득했다.

완도=김광수기자

## (사)강진군 관광협의회 임원 간담회 개최

### 코로나19 이후 특색있는 관광사업 발굴·추진 도모

지난 5일 강진만 한정식에서 공동 회장 이승욱 강진군수와 김호재 회장, 협의회 임원과 담당 공무원 등 2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사)강진군 관광협의회 임원 간담회가 개최됐다.

이날 간담회는 코로나19로 내수경제 침체가 지속되고 관광사업의 어려움이 심화되는 시기에 사회적 거리두기 완화 및 포스트 코로나를 대비해

지역관광 관광산업에 대한 방향을 고민하고 대응방향을 함께 논의해 보고자 개최됐다.

2020년 강진군 관광사업 추진상황을 설명하는 한편 코로나19 이후 강진만의 특색있는 관광사업 발굴·추진을 도모하는 시간이 됐다.

이승욱 강진군수는 “코로나19로 관광트렌드가 변화해 많은 관광객들이



해의 대신 국내 여행을 선호할 것으로 예상된다. 코로나 청정지역인 강진군은 전략적 홍보 마케팅을 펼쳐 힐링·청정 대표 관광지로 이미지를 구축하

는 한편 전국의 관광객들이 강진을 방문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할 것이다”고 말했다.

강진=김영일기자

# 책과 함께 즐거로운 거리두기

코로나19로 우리의 일상이 잠시 멈췄습니다.  
‘책과 함께 사회적 거리두기’의 실천으로  
코로나19 극복에 동참해 주세요.





